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56)(4/22/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37 장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려야 함, 1-3 절

롬 13:14 -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 4:29 -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딤후 2:22 -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1. <그리스도> 아들이아, 너를 버려라. 그러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마 16:24). 네가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비롯해서 네 자신을 주장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로 가만히 있으면, 너는 언제나 유익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 자신을 버리고, 다시는 네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네게는 더 큰 은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2. <제자> 주여, 얼마나 자주 나를 버려야 하고, 어떤 일들에서 나를 버려야 합니까?

3. <그리스도> 너는 언제나 매 시간마다 네 자신을 버리고, 큰 일에서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네 자신을 버려야 한다. 나는 그 어떤 예외도 허용할 수 없고, 네가 모든 일에서 네 자신을 벗어 버리기를 원한다. 네가 내면적으로나 외적인 언행에서나 네 자신의 의지를 벗어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네가 나의 것이 되고, 내가 너의 것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기를 더 신속하게 할수록, 더욱더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를 더 온전하고 진실하게 할수록, 그것은 나를 더욱더 기쁘게 하는 것이 되고, 네게는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말씀과 해설:

인간은 욕구의 존재이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자연적으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생명은 욕구를 가지고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그 생명을 유지한다. 욕구는 가장 우선적으로 생존 본능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욕구 자체를 최악시해서는 안된다. 욕구는 살아 생동한다는 증거이며, 욕구는 삶을 영위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문제는 이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의 욕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최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왜곡된 욕구, 변질된 욕구, 죄를 짓게 하는 욕구의 문제를 지적한다. **롬 13:14 -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약 4:3 -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구가 왜곡되면 기도도 왜곡된다. 잘못된 동기에서 드리는 잘못된 기도는 응답 받지 못한다.

왜곡된 욕구가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중의 하나는 그 욕구가 우리를 영적으로 억압하고 구속한다는 것이다. **딤후 3:3 -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최악된 욕구에 매이면 그 욕구에 종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욕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1) 성도는 잘못된 욕구와의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한다. **벧전 2:11 -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신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악한 욕구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갈 4:29 -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엡 3:16 -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2) **악한 욕구를 지혜롭게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자리를 피해 나옴으로써 죄를 짓지 않았다(창 39:12).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성경은 기록한다(벧후 2:8). 그런데 우리는 롯의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롯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롯이 최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왔으면 어땠을까? 롯의 문제를 여러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그가 악한 것을 지혜롭게 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했다. **딤후 2:22 -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때의 정욕은 뒤틀려진 성적인 욕구를 포함해서 권력, 명예, 물질 등을 향한 욕망을 포함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피해야 할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하고, 동시에 따라야 할 것, 다시 말해서, 추구하고 좇아야 할 것은 반드시 좇으라고 권면했다. 성도는 깨끗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최악된 정욕은 피하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열심으로 추구해야 한다.

(3)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최악된 욕구를 다스리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창 12:1)**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것을 명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인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셨는데, 그것은 다양한 인간적 욕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 의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계속 추구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었다. 그것들은 아브라함에게 육신적 욕구를 불러 일으키고, 세속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떠나라고 하셨다. 떠남이란 포기이며, 포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것을 다 내려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포기과 자기 부인을 통하여 자기 안에 있던 모든 인간적 욕구들도 내려 놓아야 했다. 동시에 세상 것을 향한 자신의 욕망을 내려 놓음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 놓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과 욕구의 제어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사도바울에게서도 발견된다. 제자들 역시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자신들의 부모, 가족, 고기잡는 배와 그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 놓고 주님을 따랐다. 그 모습 속에 세상적 욕구의 제어와 자기 부인이 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갈 2:20)**라는 표현으로 자기 부인을 나타내었다. 바울은 평생토록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 놓는 삶을 살았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왜곡된 욕구와 싸워 이기고,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다르며, 나를 온전히 내어 놓고 부인함으로 영적 승리를 얻으며 나아가자.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최악된 욕구를 다스리고, 나를 끊임없이 내려 놓음으로 온전한 영적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2. 미국장로교 한인목회실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교단 내의 한인교회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3.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붙잡으셔서 주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로 훌륭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